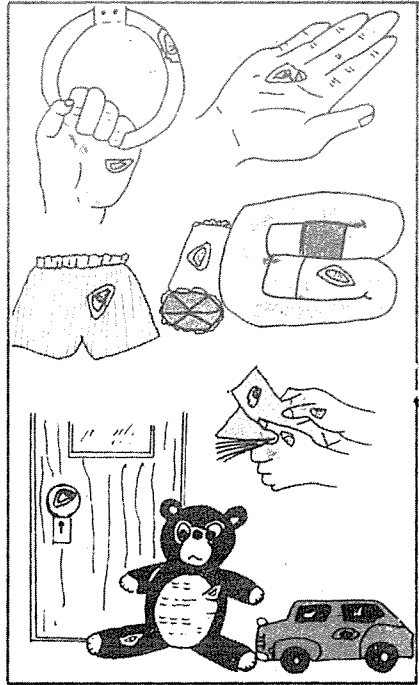


어린이 의 요충병

조 승 열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에 처음으로 요충병 감염실태를 전 국민 중에서 뽑은 사람 35,018명에 대하여 대규모로 실시한 바 있었다. 이때 사용한 검사방법은 요충병 진단에 가장 우수한 셀로판 도말법이였다.

그 이전에 요충 감염 실태를 조사한 일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단지 어린이만을 검사했거나, 작은 동네에서, 학교 한두군데에서 또는 보육원에서 수백명 정도씩을 조사하였을 뿐이어서 우리나라 전체의 요충감염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전체적으로 알기 어려웠다고 할 수 있다.

위의 조사 결과 나타난 바에 따르면

셀로판 도말법으로 나타난 요충충란 양성율은 12.0%이었고, 도시 지역 거주자에서는 10.3%, 농촌지역 거주자에서는 14.6%이었다.

연령 별로는 0~4세에서 17.8%, 5~9세에서는 32.0% 10~14세에서 19.2%로 매우 높다가 15~19세에서 6.1%, 20~24세에서 4.4% 25~29세에서 5.7% 30~34세에서 7.1%, 35~39세에서 7.7%, 40~44세에서 6.6%로 30~44세에서 다시 한번 높아졌고, 45~49세 4.6%, 50~54세에서 4.4%, 55~59세에서 4.1%이다가 손주 본 나이인 60세 이상에서 6.4%로 세번째로 높아졌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요충 감염은 0세에서 14세 특히 5세에서 9세 사이의 어린이에서 매우 높은 총란 양성율을 나타내는 기생충임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요충 총란 양성율 12.0%는 우리나라의 기생충 중에서 편충, 회충, 다음으로 높은 것이다.

요충감염은 주택이 좁고, 위생시설, 특히 수도가 없는 지역에서 유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지방에서 아직도 더 유행하는 편이다. 그것은 상수도와 같은 위생설비가 미비된 곳이 아직도 있고, 농촌 주택이 아직 좁으며, 집안 어린이 수가 아직도 도시보다는 많아서 그리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시에서

도시의 조건만 갖추면 언제든, 어디에서든지 심하게 유행하는데 유명한 곳은 보육원으로서 어린이가 한 방에서 여러명씩 같이 자고 있는 것이 제일 큰 원인이 된다.

요충에 걸리면 항문에 흰 실토막 같은 벌레가 항문으로 기어나와 곰지락 거려서 가렵게 된다. 기어나온 요충은 암놈으로서 그 속에 10,000개



~15,000개 정도의 알을 갖고 있다. 암놈 몸속의 알덩어리가 희게 보이므로 요충 암놈은 흰 실토막 같아 보인다. 암놈은 항문을 기어나와 알을 뽀아 내느라고 곰지락 거리는데 이때 나온 알은 사람 입으로 다시 들어가면 곧 감염 될 수 있도록 빨리 성숙한다.

애당초

어린이들이 처음 감염되는 것은 이웃집이나 학교 또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서 먼지에 섞여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요충 알을 우연히 몇개 먹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감염된 지 40여일만에 기어나온 암놈에서 수 많은 알이 만들어져 그 어린이의 항문에는 물론 집안 먼지에도 퍼뜨리기 시작한다.

또 어린이가 잘 때 항문이 가려워

자기도 모르게 굶다가 보면 알이 손톱때에도 끼고 그 손을 닦 지도 않고 다음날 음식을 먹다가 보면 또 걸리고 또 걸리고 한다.

그러는 사이

하루 밤에 몇마리씩 기어나 올만큼 많이 걸리는 것

은 물론 대변볼 때 그 위에 하얗게 묻어나와 고물거리고,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어머니, 할머니에게도 옮겨 차츰 온 집안 식구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가끔 있다.

항문으로 흰 실토막 같은 요충이 기어나와 고물단다고 무어 그리 대단한 것이냐고 말할 수도 있으나 막상 걸려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무척이나 불편하고 가려우며, 가려워 긁어 피부가 벗겨지고 진물도 나고, 굶기도 하면서 골치를 썩힌다.

아주 많이

감염되어 매 일밤 여러마리씩 기어 나오면 어린이들은 신경질적이 되고 밤마다 오줌싸는 일도 생긴다. 온 집안식구가 모두 걸리는 경우는 그리 많지는 않으나 일단 그렇게 되면 쉽사리 없어지지도 않고 몇 달씩 몇년씩 계속되어 온통 집안을 들 쭈셔 놓기도 한다.

어린이를 주의깊게 돌보는 어머니들은 어린아이가 자다가 손을 항문



쪽으로 자꾸 갖다 대면서 울고 보채는 것을 돌봐주면서 우연히 흰 실토막 같은 벌레가 꿈지작대는 것을 보고 요충에 걸렸음을 초기에 알게 된다. 그러나 애들 대변이 하얗게 되도록 요충이 쏟아져 나와도 모르고 지내는 어머니들도 드물지만 있다.

여하튼

요충이라는 것이 어린이에서 온통 문제가 되든지 또는 온 집안식구가 걸리든지 하면 우선 약방이나 병원에 가서 이러한 벌레가 나오는데 어찌하면 좋으냐고 묻게 된다 그러면 의사나 약사 선생님들은 요충에 잘 듣는 약을 이렇게 저렇게 먹이면 집안 청소를 잘하여 먼지가 없게하고, 내복이나 침구등을 잘 삶아 빨아서 햇볕에 말리고..... 등등 무척이나 까다로운 일을 해야 없어진다고 설명한다.

사실상

요즈음 요충약으로 는 좋은 것이 많아 가르쳐 주신대로 하면 대부분 잘 낫

고 다시는 나오지 않아 요충이 라는 것을 잊어 버리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온통 집안 식구가 모두 걸린 경우라든지, 밤마다 여러마리씩 나올 정도로 심하게 걸린 경우에는 약을 한번 먹고나면 한참동안은 괜찮다가 얼마 지나서 도로아미타불이 되어 또 나오고 다시 약을 먹으면 좀 괜찮다가 다시 나오는 하여 더욱 신경질이 되게 하는 경우가 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충을 온 집안식구가 모두 약을 먹어야 한다. 그리고 한번 먹고 그칠것이 아니라, 약먹은지 20일만에 다시 온 집안식구가 다시 먹고 다시 20일이 지나 또 한번, 그리고도 안심이 안되면 다시 20일 지나 마치 막으로 한번 더 먹게되면 일단 그동안 극성을 부리던 요충을 집안에서 몰아낼 수 있다.

그러면 왜 요충약은 집안식구가 모두 같이 먹어야 하며 또 왜 20일 간격으로 먹어야 하는 것일까?

먼저 집안 식구가 모두 먹어야 하는 이유는 요충이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 먼지에 알이 섞여 집안식구중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사람은 적게 감염이 되기 때문이다. 집안식구중 심하게 걸려 매일 밤 나오는 사람도 생기고 몇일에 한번씩 띄엄띄엄 나오는 사람도 있으며 요행히 전혀 안 걸리는 사람도 생긴다.

이런때에 심하게 걸려 매일 나오는 사람에게만 약을 먹으면 적게 걸렸던 사람에게서 띄엄띄엄 나온 요충이 내뿜은 알이 다시 집안에 퍼져 또 다시 걸리기 쉽게 된다.

따라서 집안식구 한 사람 이상에서, 요충이 나오면 안나오는 것 같이 느끼는 사람도 일단 함께 약을 먹는 것이 좋다. 그래야만 집안에 요충알이 계속 생기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로 20일씩 걸러 약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요즈음 쓰는 요충약을 먹으면 20일 정도만 요충이 안나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정도만 안나오게 하는 이유는 요충중 어린놈 특히 감염되어 10일이 채 안된 것을 몰아내지 못해 그놈들이 계속 자라 20일 이후에 다시 기어 나오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집안에서 요충이 퍼지고 있구나 해서 약을 먹기 시작했을 때에도 집안에는 이미 퍼져 있는 알이 있으며 그 알은 2주일 이상 살아남아 다시 감염될 기회가 있으므로 그런 경우에 걸린 요충이 살아 나올 것 까지 미리 약으로 없애려면 계산상 20일 간격으로 3번은 반복해야 한다. 보육원 등에서 위의 방법으로 치료하여 대단히 유효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중앙의대 기생충학 교수
·의박〉